



JAPAN
CULTURAL
EXPO 2.0



文化庁
Agency for 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Japan

令和6年度地域ゆかりの文化遺産を活用した展覧会支援事業

2024년 추계 특별전

갑옷과 투구

— 야요이 시대에서 에도 시대로 변화 —

전시회 가이드



왼쪽 고분 시대 중기의 철제 갑옷 차스리아마고분(아사고시)
아사고시 교육위원회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오른쪽 니마이도구소쿠 효고현립 역사박물관



야요이 시대

약 2,400년 전, 일본에서는 야요이 시대 중기부터 마을 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요이 시대에는 철을 가공하는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옷은 나무나 덩굴, 가죽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공이 쉬운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갑옷은 나무를 도려내온 것, 나무 판자를 이어 붙인 것 등 다양한 형태가 확인됩니다.



야요이 시대 목제 갑옷 미나미카타 유적(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오카야마시 매장문화재 센터



연결된 나무 갑옷을 입은 야요이 시대의 전사(복원품)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나무 한 그루를 깎아 만든 갑옷을 입은
야요이 시대 전사의 모습(복원품)
오사카 부립 야요이 문화 박물관

고분 시대①

고분 시대(약 1,700년 전~약 1,300년 전)에는 기술 발전으로 철제 갑옷이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분 시대 초기에는 철제 제품이 여전히 매우 귀하고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고분시대 전기의 철제 갑옷

가와라다니 1호분(교토부 기주가와시)
기즈가와시 교육위원회
재단법인 교토부 매장문화재 조사 연구센터



고분 시대 중기의 철제 갑옷 차스리야마 고분(아사고시) 아사고시 교육위원회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고분 시대②

고분 시대 중기(약 1,600년 전)에는 철 가공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대량의 갑옷이 제작되었습니다. 오사카부(大阪府)와 나라현(奈良県) 주변에서 생산된 갑옷은 야마토 정권을 중심으로 동북 지방에서 규슈 지방까지 각 지역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효고현(兵庫県)내에서는 쿠모베쿠르마즈카고분(雲部車塚古墳)과 차스리야마고분(茶すり山古墳)에서 많은 갑옷이 출토되어, 고분 시대의 야마토 정권에 있어 효고현이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분시대 중기의 철제 투구 쿠모베쿠르마즈카 고분(단바사사야마시)
교토대학교 고고학 연구실

고분 시대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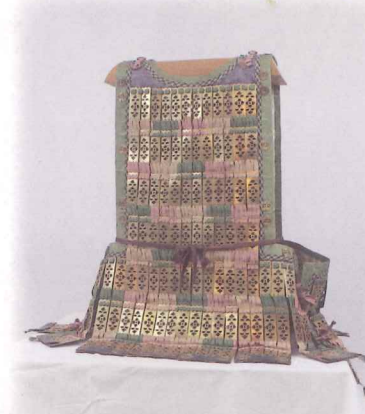
야요이 시대 이후 일본에서는 단코(短甲=판갑옷<板甲>)라는 조끼 모양의 갑옷이 만들어졌지만, 고분 시대 중기(약 1,550년 전)에 코자네(小札)라는 작은 철판을 끈으로 연결하여 만든 게이코(挂甲=찰갑<札甲>)가 중국과 한반도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 갑옷은 기동성이 뛰어나고 말을 타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고분 시대 말기(약 1,500년 전)에는 단코를 대체하여 일본의 주요 갑옷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스카 시대(고분시대 말기)의 병사(복원품)
나라문화재연구소 아스카 자료관



나라 시대 게이코의 작은 철판
헤이조궁터(나라현 나라시) 나라문화재연구소



의례용 철판(복원품) 야스쿠니 신사 유슈칸



헤이안 시대 말기의 투구 장식품
호슈사 터(교토부 교토시)키노시타 미술관

나라 시대~헤이안 시대

나라 시대(약 1,300년 전부터 약 1,200년 전)에 접어들면서, 고분이 더 이상 축조되지 않았고 갑옷을 무덤에 묻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나라 시대의 완전한 갑옷은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의 왕궁 유적 등에서 작은 철판들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게이코가 고분시대부터 계속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헤이안 시대~무로마치 시대①

헤이안 시대 중반(약 1,100년 전)에 접어들면서, 각지에서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사(武士)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반란 진압과 귀족 보호등을 통해 힘을 축적하였고, 가마쿠라 시대(약 850년 전) 이후, 약 700년 동안 일본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투를 전문으로 한 무사들은 게이코를 더욱 발전시켜 일본 고유의 갑옷인 오요로이(大鎧)를 만들어냈습니다. 철판과 가죽으로 만들어진 작은 판을 연결하여 제작된 오요로이는 말을 타고 활을 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요로이와 함께 착용되는 별투구(星兜)는 고분 시대에 사용된 충각부투구(衝角附冑)에서 변화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분 시대부터 이어진 무장 전통은 헤이안 시대에도 계승되었습니다.



헤이안 시대 말기 별투구 아이즈미조 교육위원회



오요로이(복제품) 야스쿠니 신사 유슈칸
(원품 이즈쿠시마 신사 소장품)

헤이안 시대~무로마치 시대②

하급 무사와 가신들은 하라마키(腹卷)와 도우마루(胴丸)라고 불리는 갑옷을 착용했습니다. 이들 갑옷도 오요로이와 마찬가지로 작은 철판을 연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오요로이 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방어력은 떨어지지만, 경량으로 보행에 적합했습니다.

남북조 시대(약 700년 전)에는 말에 타고 활을 쏘는 전통적인 전투 방식이 쇠퇴함에 따라, 높은 신분의 무사들 오요로이 보다 더 기동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전투 방식에 적응할 수 있는 하라마키와 도우마루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라마키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도우마루 산신산 타이산사(고베시) 오사카성 천수각 사진 제공



도우마루 하시타니 성터(고베시) 고베시 매장문화재 센터

센고쿠 시대~아즈치모모야마 시대

무로마치 시대 말기(약 550년 전)에, 교토(京都)에서 시작된 전투가 일본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증가에 따라, 그 이전 보다 많은 갑옷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량 생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갑옷인 도우세이구속(当世具足)이 등장했습니다. 도우세이구속 특징은 격렬해지는 전투에 대비하여 몸을 빈틈 없이 덮어 방어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도우세이구속
효고현립 역사박물관



도우세이구속
효고현립 역사박물관

에도 시대

에도 시대에 접어들어 평화로운 시기가 오면서, 갑옷은 실제 전투에서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갑옷이 자신의 가문의 전통과 무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화려하게 장식되기 시작했습니다.

触れる・体感する、考古学のワンダーランド。

兵庫県立考古博物館

Hyogo Prefectural Museum of Archaeology

〒675-0142 加古郡播磨町大中 1-1-1

【電話】079-437-5589 【FAX】079-437-5599

【HP】<https://www.hyogo-koukohaku.jp/>

